

건축문화 향상을 통한 농어촌 지역활성화

한국농어촌건축대전

Vitalizing in rural area by developing architectural culture

이혜정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개발처 계장

전국이 빠른 속도로 도시화되어가는 동안 농어촌마을, 농어촌 건축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는 사이 우리의 농어촌은 소득감소와 젊은 층 인구의 감소에 따른 고령화로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농어촌의 기능변화와 난개발로 인해 농어촌 고유의 문화적 특성은 사라지고, 수천 년 내려오던 농어촌의 정체성은 없어져 전국 어디를 가나 똑같은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변화에 대하여 농어촌이 가진 유형·무형의 가치를 발굴하고, 오랜 삶터로서의 전통과 지역성을 복원하려는 노력과 농어촌지역의 미래에 대한 근원적인 비전의 제시가 더욱 더 필요하게 되었다.

다행히도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농어촌마을을 되살리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관점에서 농어촌을 정의하고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정책이 행해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건축에 대한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정책과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건축전문가 및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한국농어촌건축대전'의 역할은 큰 중요성을 가진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와 (사)한국농촌건축학회가 공동주관하는 '한국농어촌건축대전'은 건축전문가와 학생의 눈을 통해 농어촌 건축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농어촌의 문제와 농어촌의 미래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제안을 할 수 있는 창구의 역할을 한다. 이 뿐만 아니라 건축전문가 참여를 통해 농어촌지역의 문제, 도시와 농어촌과의 관계에 대해 계속 물음을 던지는 가운데 지역주민, 시민, 정부, 관계 전문가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새로운 농어촌의 미래를 고민하며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한국농어촌건축대전'은 지난해부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건축부문 외에 기성 건축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준공건축부문'과 '초대작가부문'을 신설함으로써 더 많은 건축사들이 농어촌의 건축문화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준공건축부문'은 농어촌 지역특성을 담은 우수한 건축물과 지역 건축사를 발굴·육성하고, '초대작가부문'은 농어촌지역의 정서적, 문화적 정체성을 담아 낼 수 있는 공간과 환경에 대한 실천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아직은 농어촌에 관심을 두고 활동을 펼치고 있는 건축사는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향후 경제·사회가 변모함에 따라 농어업과 농어촌이 지닌 생명산업공간, 환경생태공간,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과 가치는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농어촌에 대한 진정성 있는 관심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서 당면한 농어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건축사들의 참여는 필연적이다.

농어촌건축의 가능성과 더불어 지역 활성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건축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농어촌건축대전'은 농어촌의 미래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제안을 하는 창구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할 것이다. 한국농어촌건축대전과 농어촌 건축문화에 건축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

필자는 한남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 후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에 재학중이다. (주)해원까지 종합건축사사무소와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웨스를 거쳐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건축사로서 농어촌주거환경개선 및 농어촌지역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농어촌지역 아름다운건축물 명판